

# 화학테러에는 이렇게 하자



신경 계통을 마비시키는 신경작용제를 비롯하여 눈, 코, 호흡기에 작용하는 등 여러 형태의 독가스가 있다.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는 가스도 있으나 일단 호흡이 곤란하거나 피부가 따갑고 이상한 냄새가 나면 독가스인지 의심한다.

## 독가스 살포가 의심스러운 때

-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쓰러진다든지 기침이나 구토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작을 일으킨다.
- 특별한 이유 없이 새들이 땅에 떨어진다.



## 독가스가 살포되었을 때

- 방독면 또는 물수건, 마스크, 비닐포대 등으로 호흡기를 감싸고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.
- 사고 지점 가까이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동하고,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직각 방향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.
- 가능한 고층 건물이나 고지대 등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, 건물 실내로 대피했을 때는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.
- 오염된 지역 내의 식수나 음식물은 먹지 말고 오염 물체를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다.
- 안전한 곳에 대피한 후에 현장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피부, 옷 등을 제독하고 새옷으로 갈아입는다.
- 무엇보다도 현장관계자의 지시나 신문 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관계당국의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.